군산야행, 세계축제협 우수사례 선정

피나클 어워즈 한국대회서 올해의축제인상 수상

시 "문화유산도시로서 위상 확립에 최선 다할 것"

군산의 대표적인 야간형 문화행사인 군산야행(夜行)이 20일 세계축제협회(IFEA)한국지부에서 주관하는 2017 IFEA World KOREA 컨퍼런스, Pinnacle Awards 한국대회에서 올해의축제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군산의 대표적인 야간형 문화행사인 군산야행(夜行)이 20일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에서 주관하는 2017 IFEA World KOREA 컨퍼런스, Pinnacle Awards 한국대회에서 올해의축제인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도시재생·야행컨텐츠 분야에서도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세계 각국의 축제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행사의 성공전략과 컨텐츠 개발과정을 알리는 사례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에 선정된 군산야행(夜行)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근대역사박물관과 원도심 일원에서 2016년 8월, 8만여 명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새로운 문화 컨텐츠 개발과 전시·관람, 문화재 답사, 테마공연, 체험활동 등 50여가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문화재청으로부터 2016년 전국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당일 수상과 사례 발표 보고를 진행한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군산야행이 세계적인 대표 문화행사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과 협력을 통해 군산시가 문화유산 도시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세계축제협회(IFEA, International Festivals and Events Association)는 세계적인 축제 정보와 아이디어 공유를 목적으로 1956년에 설립되어, 50개국의 회원국과 50,000명의 회원을 보유한 세계 최대의 축제전문 협의체로서 이번 컨퍼런스와 시상식을 주관한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IFEA KOREA)는 싱가포르, 중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로 개설되어 2013년부터 Pinnacle Awards 시상식을 통해 진주유등축제, 보령머드축제, 김제지평선축제 등 한국의 다양한 대표축제의 세계화에 일조하고 있다.

/군산=장 현 기자

올해 전북을 대표하는 기념품은?

전북문화관광재단, 최종작 25점 선정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전북도를 대표하는 매력적이고 우수한 관광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에 걸친 '2017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공모전을 마감하고, 최종 작품 25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사업은 전북도를 대표할 만한 각 지역의 콘텐츠를 상징하는 관광기념품을 공모·선정하여 판매 및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

공모전에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가미한 민·공예품, 공산품, 가공식품 등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으며 올해는 총 105개의 작품이 접수됐다.

작품의 선정은 도민 및 관광객 50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를 반영한 1차 일반인 심사(7월 15 ~ 16일), 관광과 유통 관련 전문가 및 교수들로 구성된 2차 전문가 심사(7월 17일), 그리고 선정업체의 현장 여건을 확인하는 3차 현장실사(7월 18 ~ 20일)를 끝으로 7월 20일(목요일) 최종 25점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중저가 상품의 약진이 두드러졌으며,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과 실용성을 겸비한 상품들이 많았다. 최종작은 고유한 지역적 콘텐츠를 담은 관광기념품들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 재단은 선정작의 안정적 궤도진입을 위해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인증마크 부여, 생산장려금 지원, 홍보물 제작, 관광기념품 박람회 참가, 특판행사 및 관광기념품 판매관 입점 등 홍보마케팅 및 판매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전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작을 도민과 관광객에게 널리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전념하겠다""고 했다.

한편 수상작 시상식은 오는 21일 재단 1층 전시실(기스락 2)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21일부터 27일까지 최종 선정작 25점에 대한 전시회가 열린다.

/정해은 기자

'모양마을 사람들' SNS 후기 이벤트

㈜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가 주관하는 2017 한옥지원활용 야간상설공연 미스터리 감성농악 '모양마을 사람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스터리 감성농악 '모양마을 사람들'은 모양마을에 도로가 들어서게 되며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가 베어질 위기에 처해진다는 이야기를 농악과 용기놀이, 사자춤 등 다양한 볼거리와 극의 요소를 활용하여 제작된 고창군 대표 상설공연이다.

참여방법은 페이스북 '고창농악'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르고 고창농악 블로그와 이웃을 맺은 후, 미스터리 감성농악 '모양마을 사람들'의 감동 후기를 자신의 SNS에 올린다. 그다음 자신이 쓴 글 URL을 고창농악 페이스북 혹은 블로그 공지 글 댓글에 달면 완료가 된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8월 25일 오후 6시 페이스북과 블로그 공지에 게재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낙관부분 오탈자 발견 못한건 큰 실수"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 대상 선정 '완당선생 시' 논란 해명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7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기념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완당선생 시(행초서 부분)' 낙관의 오자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 "심사 당일 작품 본문부분의 오탈자는 김병기 총감독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확인했으나, 낙관부분의 오자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큰 실수로 인정한다"며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잡음을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위원회는 또 낙관부분에 오자가 있음을 사전에 알고도 대상작가로 발표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작품 공개이전에 대상작가로부터 낙관부분에 오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작품 본문부분에 오자가 있다면 작가의 능력부족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낙관부분의 오자는 일시적인 착각에 의한 실수로 볼 수 있다"면서 "더욱이 작가 본인이 이를 사전에 발견하고 보고한 상황에서는 작가의 실력과는 별개로 단순한 실수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직위는 낙관부분에 단순 실수로 오자가 발생한 경우, 원래의 작품을 살리기 위해 보구한 사례가 더러 있었지만 작품의 질에 결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본문이 아닌 낙관부분의 오자는 충분히 보구(보충해 구제함)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차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심사위원회의 내부 검토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러한 판단아래 대상작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작가로 하여금 보구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총감독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당분간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경우, 시상 취소 등의 조치는 추후에 심사위원을 재소집하여 심의 후 시행하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서예가들이 구독하는 전문잡지에 이를 게재, 공론화 과정을 거쳐 문제를 해결 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여름방학 마술공연 확대 진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은 여름방학을 맞아 그 동안 진행해오던 마술공연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매주 토요일 11시 근대역사박물관 로비에서 1시간동안 진행되는 마술공연은 문괵토리 매직의 문태현 마법사가 진행하며 그 동안 매월 1회씩 운영해오던 프로그램을 여름방학을 맞아 매주 1회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문태현 마술사 특유의 유머와 개성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군산=장 현 기자

남원 예가람 미술관, 현대도예작가 초대전

남원의 예술의 거리에 자리한 예가람길 미술관에서 '조선도공을 그리며'를 주제로 열리는 이 초대전은 국내 21개 대학의 교수들과 작가 등 28명이 참가하여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도자문화를 꽃피운 조선의 도공을 기리면서 우리의 전통미에 기반을 둔 독특하고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게 된다.

이번 전시회는 5년째 남원에서 국제도예캠프를 이끌어 오고 있는 김광길 교수의 연잎을 주제로 한 작품과 저명한 현대 도예작가들의 감춰진 열정이 담긴 창작물을 한껏 보여줌으로서 미술관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초대전은 20일 오후 5시에 개막했고, 8월 25일까지 계속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